

엠에스엘(주) 김해명 회장, (재)지스트 발전재단에 3억 원 기탁

- 18일 기탁식 개최... 30주년을 맞는 지스트와 발전재단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18일(수) 오후 5시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기탁식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 (주)한국쓰리축 유구현 회장, 엠에스엘(주) 김해명 회장, 지스트 김기선 총장,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이근신 대표, 지스트 전창덕 연구원장

(재)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발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해명 엠에스엘(주) 회장이 지스트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은 1월 18일(수) 오후 5시 총장실에서 김기선 총장, 전창덕 연구원장 등 지스트 경영진과 (재)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지스트 발전재단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개발, 기초·응용연구의 수행 등 지스트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특히 사회공헌사업으로 소외지역 아이들을 위한 도서기증과 학업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김해명 회장은 지스트에 누적기금으로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탁했으며, 이번에 3억 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엠에스엘(주) 김해명 회장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는 지스트와 발전재단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은 “학교를 위한 김해명 회장님의 고마운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스트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개선과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